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20세기 인물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나치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일 것이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을 통치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홀로코스트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장본인이었다.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의 참혹함과 끔찍함은 서방 사회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히틀러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는 "타민족을 대량학살해도 된다."는 끔찍하고 편협한 생각을 합리화시킨 것이라 보면 된다. 나치즘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인 인종주의 특히 반유대주의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켰다.

나치즘을 부를때 보통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를 토대로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을 똑같은 전체주의 독재자라는 논리로 보기도 한다. 이는 과거 서구 학계의 주된 논리였다. 따라서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사회주의)가 공통점이 많다고 과거 서구학계는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이는 히틀러와 스탈린 1인집권이라는 것만 본 관점이기도 하다. 스탈린의 굴라그와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소를 똑같은 선상에서 보기도 하는데, 굴라그와 절멸 수용소는 성격이 너무 다르다. 굴라그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고, 마을과 수용소를 제법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었다. 반면에 아우슈비츠 같은 죽음의 수용소는 오로지 인종청소가 목적이었다.

또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달랐다. 나치즘은 반마르크스주의와 반볼셰비즘 따라서 반공주의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이용했지만, 스탈린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부정했다. 반면 나치는 사유재산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봤다. 또한 소련은 인종주의를 극구 반대했다. 이런 점에서 나치와 소련의 이데올로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 나치의 이데올로기와 서구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반공주의라는 점에선 미국이나 영국 지배층과 궤를 같이 했다. 1930년대 당시 영국 하원 의원이던 윈스턴 처칠은 "무솔리니는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해독제"라고 표현했다. 나치 또한 반볼셰비즘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표명했다.



영토팽창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19세기에서 20세기 서구 제국주의는 시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화했다. 히틀러의 영토팽창 논리인 생활공간 확보 즉 레벤스라움은 이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히틀러의 유럽 정복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은 서구 제국주의에 있다.

인종주의도 그러하다. 히틀러가 강력히 표방한 반유대주의도 따지고 보면,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던 흐름이었다. 물론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거지만, 이들에 대한 나치의 체계적인 억압정책은 서구 사회가 식민지를 통치하던 것과 비슷하다. 타인종을 한 민족이 지배하고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서구 제국주의가 만들어 냈으며, 나치는 이를 반유대주의에 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때, 히틀러와 나치즘의 가장 큰 문제는 서구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편협한 인종주의와 반공주의다. 이 논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만들었고, 2,700만의 소련인을 학살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나치를 비판해야 하며, 서구 사회의 편협한 나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